

# 색색 수놓은 가을산은 '한폭 만다라'

## 백두대간 속으로 <22>

### 하늘재-대미산-황장산-저수령

가을이다. 서정주 시인의 절창마냥,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 때다. 그래서 가을은 슬프게 아름답다. 계절이 저물녘으로 접어들 때문일까, 아니다. 그런 아니다. 계절이 매양 뒤바뀌는 것이 정한 이치이고, 다가올 겨울을 예감하기에는 아직 대지는 너무 상심하다. 그런데 왜?

남은 모든 기운을 모조리 쏟아낼 듯 이글거리는 태양의 몸짓이 내 마음 한 자락을 숙연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련없을 이란 비로 저와 같아야 하리. 그리고 그 빛을 온몸으로 받아내어 색색으로 피어나는 꽃들 또한 참으로 웅글치다. 모름지기 남의 은덕으로 사는 모든 것들은, 받은 것 같무리하기를 저와 같이 하여야 하리.

이로써 가을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의 궁극을 한 폭의 만다라로 펼쳐 보인다. 하여, 가을의 아름다움은 치열하고도 처절하다. 그래서 가을은, 그것도 문턱에 선 가을은 슬프게 아름답다.



◇초가를 햇살을 빗질하듯 들어선 강아지풀들의 실루엣이 환상적이다.

고추잠자리 한가로운 문경의 들판을 가로질러 하늘재를 오른다. 아직 가을길 이룰 하기에는 이른 때인지라 들판엔 구슬이 의심스런 허수아비만이 한껏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 고개를 숙인 채 누렇게 익어가는 벼들도 사름에 겨운 제 주인의 처진 어깨를 닮은 듯, 황금 들녘이

### 관음재 바위능선 구비구비 넘다 눈물샘 물한모금 갈증 풀리고



◇참 맑은 햇살이라는 앞에 딱 어울리는 가을별 아래 심신을 내려 놓는 취재진.

라는 상부적 표현 따위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투다. 이제 우리에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너무나 잔인한 언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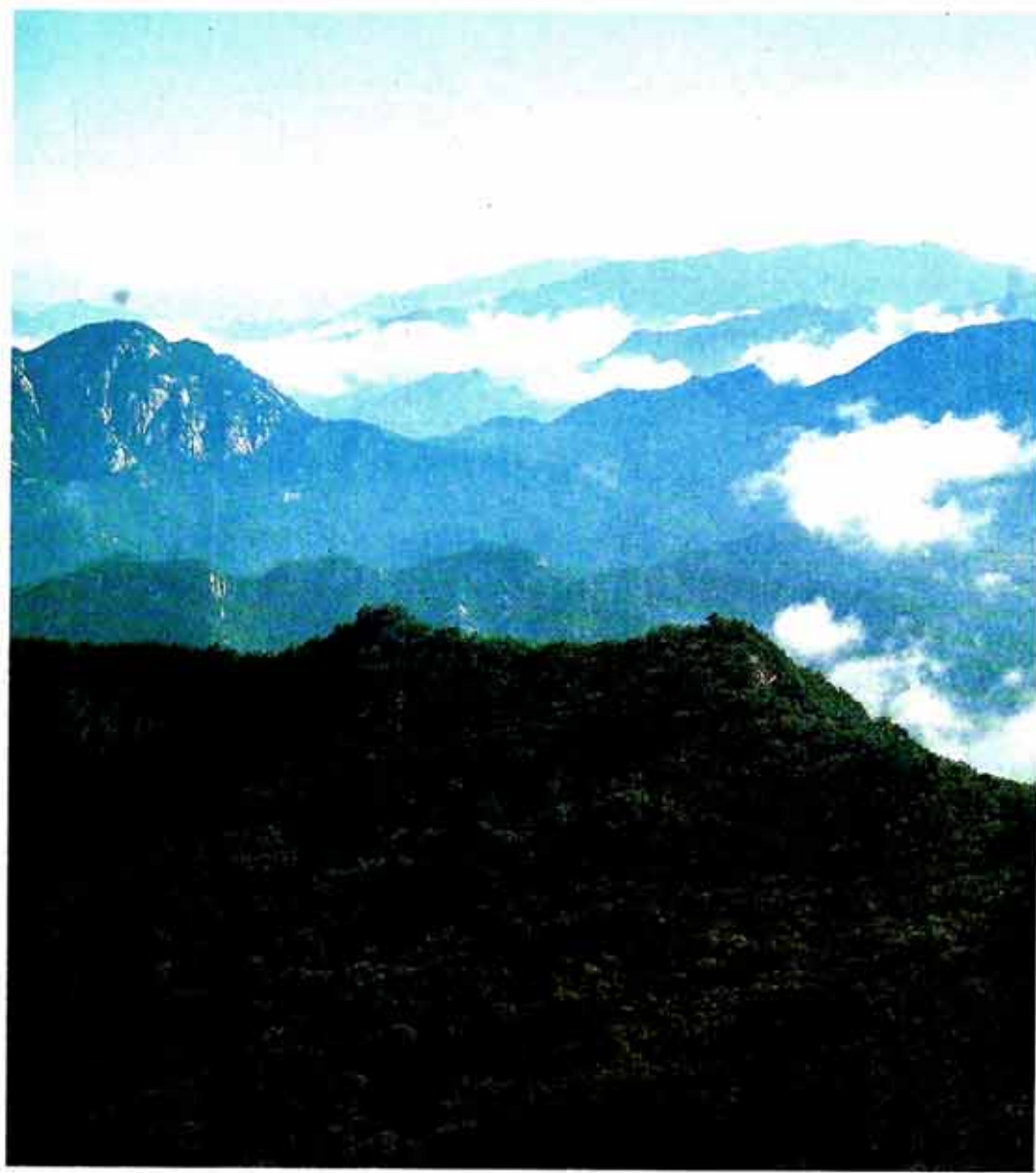
하늘재 마루에서 바투 다가서 바라보는 포암산(961.8m)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처럼 압도적이지는 않다. 이 산은 달리 배(布)바루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암릉으로 이루어진 정상 모습에 마치 배로 덮여 놓은 듯하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또한 이 산은 회계 우측은 모습이 겹질을 벗겨놓은 삼대갈다 하여 마골산(麻骨山)이라고도 불리었고 계림산(鷄立山)이라는 옛 기록도 가지고 있다.

하늘재에서 포암산 정상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충분하나, 중턱쯤에서 만나게 되는 동양화공의 소나무와 어우러진 바위 기슭에서 주홍산폭으로 열린 조망을 즐기거나 순백의 꽃잎을 피워올린 구절초와 눈인사라도 나누려면 좀더 넉넉한 시간을 잡는 게 좋다.

포암산 정상을 벗어나서 충주시 상모면으로 길을 열어두고 있는 관음재에 이르기까지는 돌계단을 놓은 듯한 암릉을 지나야 한다. 맑긴 해도 오르내림이 잦아 두 다리에 꽤나 부담을 안겨야 한다. 그러나 관음재를 지나 제천시계를 만나면 서는 순한 길이 이어진다. 이곳에서부터는 대미산(1,115m)의 품을 걷는 셈이지만 정상까지는 꼬박 반나절은 다리뭉클을 팔아야 할 거러다. 더욱이 무성한 참나무가 시야를 장악하고 있어서 먼눈으로나마 대미산의 자태는 가끔씩밖에 볼 수 없다.

대미산의 정상은 '크게 아름다운 산(大美山)'이라는 이름과 달리 돌레에 억새만이 무성한 밋밋한 형국이다. 그러나 정상을 지나 북쪽 기슭에 걸린 눈물샘에 이르르면,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으로 조선시대에 편년 <문경현지>에 '문경 여러 산의 할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적혀 있는 '검푸른 눈썹 산(黛眉山)'이란 한자 이름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진다. 눈물샘이라는 이름은 팔시 후대의 말승씨 혹은 누군가로부터 비롯되었을 것인데, 어쨌거나 눈썹 아래서 솟아나는 산이나 눈물샘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었고, 목마른 산꾼들에게는 눈물이 날 만큼 반가운 샘이기도 하다. 대간의 마루에서 보랏빛 물봉선화가 이끄는 내리막으로 조금만 내려서면, 한 바가지로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가을의 문턱에서 맞는 산 속의 아침은 각별하다. 벽공(碧空)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올라지는 하늘의 본 색깔과 순도 100%의 투명한 공기, 그리고 어린아이의 킁뽀를 뱉어 꾸비는 듯한 느낌의 파스한 햇



◇황장산에서 소백산 쪽을 바라본 모습. 험 험한 산줄기 위 아득한 곳에 침침한 농선으로 이어지는 산이 소백산이다.

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에 감사할 거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가야할 길은 황장산 넘어 별재를 지나 저수령까지. 죽히 하루하루를 바쳐야 할 길이다. 하지만 햇살 좋은 가을 하늘 아래서라면 결코 재촉할 일이 아니다. 더딘 걸음이어서 길이 끝나기 전에 해를 보내야 한들 그게 무슨 대수라. 석양이 장엄하는 하늘 한 귀퉁이를 엿볼 수 있다면 그 또한 행운일 터.

황장산(1,077.3m)은 흔히 춘암목이라 불리는 금강송에 버금가는 질 좋은 소나무인 황장목(黃鵬木)이 많았다는 데서 비롯된 이름이다. 나이에 더 누린 송진이 베어든 모양을 일컫어 황장(黃鵠)이라 한 것인데, 뒤물림이나 갈라짐이 없어 궁궐의 목재나 임금의 관, 또는 배를 만드

는 데 주로 쓰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황장산에는 질 좋은 소나무가 거의 없다. 대부분 참나무로 숲의 천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숙종 때 봉산(封山)으로 지정돼 나라에서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표석은 문경시 동로면 명정리에 남아 있다.

황장산의 정상 직전은 아슬아슬한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의 근접을 막는 정도는 아니다. 황장산 정상에서의 조망도 꽤나 근사하다. 동북쪽으로는 험 험한 산줄기 위 아득한 곳에 소백산의 흰털한 능선이 허리에 구름을 두르고 서 있다.

황장산을 내려서면 암릉을 지나자마자 급전직하의 낭떠러지에 가까운 내리막을 달려 별재(620m)에 이르게 된다.

문경시 동로면과 단양군 대강면을 잇는 고개로, 이 고개의 북쪽 너머 대강면 방쪽리는 도예촌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별재에서 저수령(848m)까지는 서너 시간이면 속한 만큼 그리 힘든 길이 아니다. 저수령이 워낙 높은 곳에 자리한 탓에 산이 허리를 크게 낮추지 않기 때문이다. 경북 예천군 상리면과 충북 단양군 대강면을 잇는 이 고개의 이름은, 큰 길이 나기 전 험난한 산길 속으로 난 오솔길이 워낙 가팔라 길손들의 '머리가 절로 숙여졌다(底首)'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비둘이 아닌 고개 속임. 잣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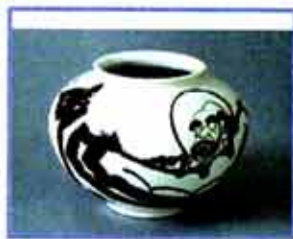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 마하몰 신상품 및 추천상품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1. 달미자기**  
▶ 가격: 30,000원  
고급나무 캐비닛 : 15,000원 (별매)  
※ 작가: 이순길



**2. 청자 당초 5인자기**  
▶ 요장: 경기도 여주  
구분: 청자  
소재: 청자토 + 재유 (천연유)  
가격: 42,000원



**8. 홍화기공식품**  
▶ 홍화씨 - 용량: 500g (1봉지) 가격: 25,000원  
▶ 홍화분말 세트 - 용량: 200g\*3봉지 가격: 90,000원  
▶ 홍화정 세트 - 용량: 200g\*3봉지 가격: 120,000원  
▶ 홍화액기 세트 - 용량: 80ml\*60포 가격: 12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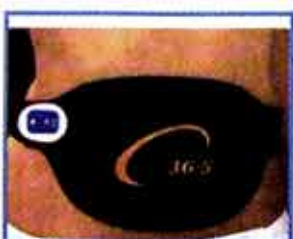
**4. 참선명상방석**  
▶ 크기: 39cm x 43cm  
가격: 참선명상방석 30,000원  
숯 참선명상방석 35,000원  
왕도 참선명상방석 35,000원



**5. 백화향 선물세트**  
▶ 구성: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긋이  
가격: 50,000원  
※ 사은품으로 천연한방약향 북주머니를 드립니다



**6. 반야심경 달마도 경판**  
▶ 스탠드형  
규격: 가로 49cm, 세로 23cm, 두께 2.8cm, 무게 1.8kg 가격: 97,000원  
▶ 액자형  
규격: 가로 69cm, 세로 43cm, 두께 3cm, 무게 4.5kg 가격: 107,000원



**7. 오은열간기벨트**  
▶ 구성: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아답터  
색상: 검정, 회색, 베이지  
가격: 105,000원



**3. 코스모스 머그잔**  
▶ 수량: 2개  
▶ 요장: 경기도 여주 가격: 5,700원  
- 100개 이상 주문시 단체명 인쇄  
- 500개 이상 주문시 10% 할인 및 단체명 인쇄  
- 1000개 이상 주문시 15% 할인 및 단체명 인쇄



**10. 향적원 선물세트**  
▶ 1호 - 용량: 고추장, 대파장아찌 (각 1kg), 가격: 42,000원  
▶ 2호 - 용량: 오이, 감, 무우장아찌 (각 500g), 가격: 20,000원  
▶ 3호 - 용량: 된장, 고추장, 대파, 마늘장, 무우장아찌 (각 500g) 가격: 39,000원  
※ 모든 향적원 선물세트에는 건강 900ml가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